

# 이번 수능은 쉽지 않습니다.

오르비 기하급수(1077495)

안녕하세요 기하급수입니다.

최근 킬러문항에 관한 이런저런 논란으로 제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짧은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할 것 같아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공부는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 1. 시험이 실제로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공부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촘촘히 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가원장이 사퇴하고, 나라에서 “킬러 문항”을 꼭 짚어서 저격하고, 고난도 문항을 배제할 것만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능이 어떤 기조로 출제될지는 당연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로 이번 6모에서의 선택과목처럼 킬러 문제가 없다시피 나올 수도 있고, 평가원이 이따금 그래왔듯 난이도 조절 실패로 매우 어려운 불수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수능을 대비하고 쉬운 시험지를 받았을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문제가 큽니다. 저는 평균적인 시험지의 150%정도의 난이도까지 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방법은 별다른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모의고사들 안 거르고 열심히 풀고, 그렇게 나왔을 때 최대한 손해보지 않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이것에 관련해서는 기회가 되면 새로 칼럼을 올려보겠습니다!

## 2. 100%확률로 시험이 쉽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고난도 문항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운동선수가 훈련시 모래주머니를 차고 실전에서 벗어던지면 널널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소에 공부할 때 “설마 나올까?” 싶은 난이도의 문제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한다면 실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실력이 올라가면 비킬러/준킬러 문항까지도 기존에 느끼던 난이도보다 훨씬 쉽게 느껴집니다. 수학을 예로 들자면 3점짜리 문제들도 3등급보다는 1등급 학생이 훨씬 매끄럽고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처럼요. 실모 푸실 때에도 (시간 내에 풀지 못하더라도) 킬러문제 거르지 말고 풀고 분석하세요.

지금 기출분석 하시는 분들은 괜히 급한 마음에 어렵다고, 안 나올 거라고 행복 회로 돌리면서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 3. 걱정한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걱정이 많은 편인데, 그럴 때마다 걱정한다고 달라질게 없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계속 떠올립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내고 나면, 실제로 필요한 걱정예 대비할 여유가 생기더라구요. (작년 수능 끝나고 제 OMR카드가 실린 트럭이 불에 타서 없어져서 재시험 보는 걱정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ㅎㅎ)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팔로우 해주시면 양질의 칼럼을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외의 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칼럼(이런거 써주면 좋겠다! 하는거 제보 받습니다!!)

- 방향성을 잃은 노력은 무가치
- 수능은 마라톤이 아닌 이유
- 무조건 성적 오르는 수학 공부법
- 정적분, 부분적분, 정사영과 정규분포 뒷복성 팁
- 예과생이 쓰는 대학생활 팁
- 실모 활용법
- D-30
- 그 외